

2018

네이버 프로젝트 꽃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 - 서울편
인터뷰 원고 샘플

특별한 하루, 우리들만의 요리 놀이터

- 후암주방

후암시장 근처 골목에는 작은 주방이 한 채 있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작은 서재 한 채도 볼 수 있다. 두 곳 모두 후암동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가 만든 공유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이 공간들이 동네에 소소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입소문을 타던 후암주방은 어느새 치열한 예약 경쟁을 뚫어야만 하는 인기 주방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집의 이름을 갖게 된 우리동네 공유공간,
후암주방 그리고 후암서재입니다.”

후암동에 등지를 튼 도시공감협동조합

도시공감협동조합은 이준형 실장과 같은 대학 건축과 선배배들이 함께 모여 만든 건축사사무소다.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등 전공 분야에서 함께 일을 해보기로 뜻을 모았고, 2016년 여름, 후암동에 첫 사무소를 내게 된다. 후암동을 알게 된 건 구가건축 페이스북에 올라온 후암동 답사 사진을 통해서였다. 남산 아래 일제시대 문화주택, 협소주택이 있는 후암동의 건축적인 풍경에 매력을 느꼈다.

후암동에서 본업 외 재미있는 일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공유 공간을 꾸리게 됐다. 단순히 공간 대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공간을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한다. 카페에서 공부하고, 친구 데려와서 저녁 한끼 근사하게 차려먹기도 힘든 젊은 세대들이 집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떨까? 집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공간들을 골목 위에 구상하기 시작했다.

프라이빗한 공유 공간, 후암주방과 후암서재

그렇게 2017년 3월, 도시공감협동조합의 공유공간 1호인 후암주방을 오픈했다. 쿡방, 먹방이 인기지만 집에서 따라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단순히 친구들끼리 요리해먹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주방부터 열게 됐다. 3평 남짓 아담한 크기의 후암주방은 무인으로 운영되며, 매일 낮과 밤 각 한 팀씩만 예약을 받고 있다. 주방 정리는 도시공감 직원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며 관리한다.

무인 운영이라 예약 손님을 마주칠 일은 없으나,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재미있는 접점이 생겼다. ‘잘 썼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가요’ 같은 작은 손편지들이 주방에 쌓이게 된 것이다. 이런 기록을 후암주방 인스타그램에 하나씩 올렸더니, 이제는 예약 손님마다 릴레이처럼 메모를 남기고 간다고 한다.

맛 한번 보시라고 요리를 덜어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 한 번은 ‘우리 음식은 너무 맛이 없어서 드릴 수가 없다’며 바나나 한 송이를 간식으로 두고 가신 적도 있다고 한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기는 재미있는 일화들, 처음 무인 주방을 계획했을 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어느새 후암주방만의 문화가 되었다.

식재료가 남으면 대체로 냉장고에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기에는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던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냉장고부터 확인한 후 없는 재료를 후암시장이나 근처 마트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용객들의 절반 가량이 후암동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 후암주방이 마을에 새롭게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도시공감은 공유공간 2 호로 2017 년 12 월에 후암서재를 열었다. 동네 주민들의 서재, 작업실, 사랑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모임 공간으로 편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매주 일요일 낮에는 일요서점을 운영한다. 매달 한 두명씩 아티스트들을 선정해 작품 및 추천 도서를 전시, 판매하는 등 오픈된 공간으로 변신한다.

제 3 의 공유 공간은? 후암가록을 담은 갤러리

도시공감협동조합은 앞으로도 작은 공간들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직원들끼리 다음에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지 얘기하다 보면 프라이빗한 작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 1 인 스파나, 후암동 최초의 코인 세탁소 등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툭툭 튀어나온다. 아마도 바로 다음 3 호 공간은 아마도 작은 갤러리가 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공감은 수년간 후암동의 집들을 기록하는 마을 아카이빙 활동인 ‘후암가록(厚岩家錄)’을 진행해왔다. 새로 생길 갤러리는 그 기록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거라고 한다. 후암가록은 20 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사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집을 실측하고, 디지털로 기록하는 작업이다. 현재 14 가구 가량 참여했으며, 신청한 주민에게는 그림액자와 금속명패를 선물로 드리고 있다. 후암동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집 밖에 걸린 명패를 보며 집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후암가록 및 도시공감이 기록하는 더 자세한 후암동 이야기는 The Project Huam (<http://www.project-huam.com/>)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한 나만의 공간으로
편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공유주방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생일날 좋은 곳 가서 비싼 것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주는 미역국, 파스타 하나라도 같이 나눠 먹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인 것다고 말한다. 매일 요리 냄새와 사람의 온기로 훈훈한 공유 부엌, 후암주방에는 오늘도 사람들의 시간과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인다.

About 후암동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남산 아래 위치한 후암동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오래되고 한적한 동네이다. 일제시대의 문화주택이 많이 남아 있으며, 한차례 협소주택 붐이 일었던 곳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용산구 개발 청

사진을 밝히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용시간 : 오전 10 시-오후 3 시 / 오후 5 시-오후 10 시 (최소 이용시간 3 시간)

후암주방 인스타그램 : @huamkitchen

후암주방 예약하기 :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

프로젝트 후암 홈페이지 : <http://www.project-huam.com/>

2018

아는 서울 로컬 큐레이터

서울 속 초식형 아지트

연재 원고 샘플

도시이방인이 찾아낸 서울 속 초식형 아지트

구산동도서관마을

- 집과 골목의 기억을 간직한 빛의 도서관

Intro.

탐색의 확장,

살아갈 동네에서 머무를 공간으로

빡빡한 서울 생활을 버티던 힘은 집 밖에 오아시스처럼 있던 새로운 휴식 공간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다. 지금은 로컬에서도 자생적인 문화 콘텐츠들이 다양하지만, 처음 서울 생활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서울에서 일하게 되면서 틈날 때마다 고향에서는 못 보던 공간들을 가보는 게 새로운 취미였다.

밴드 공연을 보려고 말로만 듣던 홍대 클럽을 하나씩 터 가는 재미도 있었다. 지금도 공연은 자주 보러 다니지만, 결이 다른 감수성을 채우려고 다닌 곳도 많았다. 이를테면 천장까지 책장이 닿아 있던 북카페나 정기적인 낭독회를 열던 편집샵, 독창적인 큐레이션 감각에 반해버린 독립서점은 물론, 봄가을로 앞다투어 열리는 플리마켓까지. 가만히 보고 듣고 읽고 향유하는 초식형에 가까운 휴식. 찾아내자면 별천지는 끝이 없었다.

(사진 1)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애착을 갖던 공간들이 이전하거나 사라지는 경험도 늘어났다.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원망스러웠고, 사랑하는 공간을 잃는 상실감이 싫어서 그럴 바엔 어떤 곳도 아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정 붙일 공간을 찾아내는 일, 그거야말로 도시이방인인 내가 이 도시에 적응해 온 방식이었다. 훌륭한 공공건축공간에서부터 감각적인 복합문화공간에 이르기까지, 동물적 감각으로 찾아낸 서울 속 초식형 아지트를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2)

그냥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마을’

시작은 SNS에서 본 한 장의 사진이었다. 온통 하얀 외벽에 창문이 무수히 난 건물. 1층에서 우러러보면 천장이 몇십 미터 위에 있었다. ‘여기 혹시 미술관인가요?’ 아니었다. 도서관이란다. 그것도 한국에, 내가 사는 은평구에 있다. 그런데 이름이 특이했다. 도서관이면 도서관이지, ‘도서관마을’은 뭐지? ‘구산동도서관마을’과의 첫 만남은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됐다.

(사진 3)

한적한 일요일 오후, 도서관이 있다던 주택가 한가운데를 찾았다. ‘이런 골목에 도서관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5분쯤 지났을 때, 수십 개의 창문이 난 건물이 나타났다. 우리가 알던 일반 도서관과는 다른 모습. 간판을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게 맞다. 어떻게 이런 특이한 모습의 도서관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된 걸까?

(사진 4)

실내가 된 골목, 집의 기억을 에워싸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원래 있던 건물 4채를 이어 만든 리모델링 건축물이다. 마을 도서관을 원하던 주민들의 서명 운동 끝에 2012년 본격적인 도서관 건립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다. 의견 수렴 끝에 고안한 방법은 바로 기존 건물 여러 채를 하나로 에워싸는 것!

(사진 5)

우선 매입한 부지에 있던 건물 8채 중 4채를 철거했다. 남은 개별 건물들을 그대로 유지하자니 기존 주택 안에 도서관 서가를 놓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건물 하나를 새로 지으면서 기존 건물 4채를 전부 잇고 에워싸기로 한다. 건물 4채 사이에 있던 골목과 주차장, 앞마당 같은 것들이 전부 실내로 들어온 것이다. 옛 골목의 기억을 간직한 도서관. 이곳이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마을'인 이유를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사진 6)

문을 열고 옛 골목이었던 로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안내데스크부터 보아서 얼핏 이 공간 전체가 한눈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면 4층 천장까지 탁 트인 광장 같은 곳이 보인다. 원래는 건물들 사이였던 공간이 지금은 북카페처럼 활용되고 있다. 게다가 모든 층에서 이곳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 얼른 올라가 보고 싶어서 성큼성큼 계단을 올랐다.

(사진 7)

열람실이 된 방, 보고 읽고 집에서 얘기하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방'이다. 50개가 넘는 방들은 대부분 보존되어 현재는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 토론방, 동아리활동실, 책 읽어주는 방 등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진 방은 곧,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다. 엄마들이 책 얘기도 나누고, 소리 내 동화책도 읽어주고, 때론 깔깔대며 만화책도 볼 수 있는 도서관. 단순한 공공도서관 이상의 마을 커뮤니티와 다름없는 구산동도서관마을에는 날마다 이야기가 하나씩 쌓여간다.

(사진 8)

복도로 온 서가, 옛 골목에서 책을 고르다

오래된 방들이 책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을 고려해 방과 방을 잇는 복도에 서가를 두었다. 지금의 책복도는 옛 골목이었던 자리. 서가가 된 골목에서 책 한 권을 골라 햇빛 잘 드는 자리에 앉았다. 곧바로 졸음이 쏟아져서 하릴없이 미로 같은 도서관을 돌아다녔다. 공간이 예뻐서 내부를 좀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2층과 3층, 3층과 4층 사이에 연결된 바깥 공간도 기웃거리려고, 꼭대기 층 난간에서 1층 광장을 조망하기도 했다. 한때는 어느 집의 발코니였을 외벽을 손으로 쓸어보니 새삼 이곳이 마을의 일부로 느껴졌다.

(사진 9)

낮선 듯 익숙한 책들의 미로

역설적이지만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은평구가 상대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강남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연립주택이 없었고, 있었다더라도 부수고 새로 지었을 거라는 것. 본 도서관을 지은 건축사사무소 소장님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렇지만 마을 공동체 기반이 탄탄했던 은평구였기에 구상부터 완공까지 잘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특별한 일 없는 하루, 길의 기억을 간직한 책들의 미로에서 기분 좋게 헤매 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 10)

구산동도서관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9-23

- 2016년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 시간 : 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월요일 휴관
- 문의 : 02-357-0100
- 견학 신청 : <http://www.gsvlib.or.kr/parti/visit.asp>

2018

아는 서울 로컬 큐레이터

‘1인가구 도시이방인의
다음 이사는 어디로 갈까?’
연재 원고 샘플

천변에게 보내는 봄의 연서

- 은평구 응암동

내가 불광천을 처음 찾은 건 작년 봄이었다. 앞서 홍제천변에 있던 저렴한 월세방을 심심풀이로 구경했다가 공연히 천변에 살고 싶은 마음만 잔뜩 부른 때였다. 안산에 살 때처럼 서울에서도 공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다. 하천을 낀 산책로 주변은 공원 이상으로 초록이 무성했다. 하지만 매일 지하철을 타야 하는 나로서는 고민이 많았다. 지하철 2호선을 타려면 홍제천에서 한참을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며칠도 안 돼서 물가에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 되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고, 말로만 듣던 불광천 쪽을 알아보기로 했다.

(사진 1)

첫눈에 반하면 누구나 그럴듯

불광천이 흐르는 은평구는 홍대 인근에 살던 젊은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집을 찾아 차선책으로 택하는 곳이다. '범홍대 Area'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지하철로 10~20분이면 합정역에 도착한다. 응암역에서 월드컵경기장역까지, 지하철역 옆으로 물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멀리 올라갈 것도 없이 그 주변으로 집을 알아봤다. 하루는 반차를 쓰고 갔었는데, 응암역 밖으로 나온 나를 맞이하던 천변 풍경이 아직도 생각난다. 내 어깨 위로 따스한 햇볕이 내려앉았고, 나와 같은 빛을 받은 수면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늘 없이 밝고 상냥한 첫인상이었다.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었지만 나는 금세 이 동네와 사랑에 빠지게 되리란 걸 알았다.

(사진 2)

사랑은 순식간에 깊어졌다. 재차 와서 둘러보는 동안 불광천의 예쁜 구석을 더 발견했고, 하루빨리 내 집을 확정 짓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마음에 들었다. 비록 골목이 좁고, 차 달 곳이 적고, 조금만 접어들면 시골벽적인 먹자골목이 나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적당히 눈 감고 살면 될 것 같았다. 동행한 공인중개사님 말씀이 불광천에 면한 쪽은 방이 잘 안 나온단다. 살기가 좋아서 어쩌다 나온 방도 빨리 빠진다고 했다. 적당한 집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집을 구했고 한 달 후에 이사를 했다. 연고와 상관없이 단순히 어떤 풍경 곁에 살고 싶은 마음으로 집을 얻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사진 3)

#불광천 #OOTD #내_마음속에_저장

하루가 다르게 소생하는 봄은 불광천에 반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었다. 다만 늦봄 무렵에 이사 온 터라 벚꽃길 감상은 내년으로 미뤄둬야 했다. 어김없이 천변을 걸어 외출하는 나에게 불광천은 매일 다

른 얼굴을 보여줬다. 휴대폰 사진첩은 전에 없이 집 주변 사진들로 가득 찼다. 여름에는 싱그러운 초록 사이를, 가을에는 강아지풀과 억새 곁을, 겨울에는 하천 주변의 눈길을 걸었다. 지대가 낮은 천변 산책로에서 올라다본 하늘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었다. 구름과 노을, 보름달의 선명함에 내 눈을 의심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 시리도록 청명한 날에는 하늘 대신 하늘이 비친 물을 보며 걸었다. 그냥 살면서 보는 많은 풍경이 선물 같을 때가 많았다.

(사진 4)

천변에서는 우리 꽃길만 걷자

그렇게 사계절을 지나 다시 봄이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응암동은 불광천 주변이고, 벚꽃길이 한창 예쁠 때 소개하고 싶었다. 2002년 무렵에 심은 벚나무는 3월 말쯤 올해 첫 꽃망울을 터뜨렸다. 번덕스러운 날씨를 견뎌내며 4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화사함을 자랑한다. 어느 벚꽃 명소 부럽지 않은 불광천 벚꽃길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놀이를 즐긴다. 꽃 터널 아래에선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다. 출근길엔 매일 꽃길의 배움을 받고, 퇴근길엔 아득히 드리운 꽃가지가 지하철 출입구까지 마중 나와 있다. 마치 우리 집 현관이 벚꽃길 위에 나 있는 것만 같다. 새삼 이곳에서의 봄이 고마워진다.

(사진 5)

서대문구 북가좌동과 은평구 응암동이 만나는 경계 어디쯤에 사는 나는 아직 우리 동네를 잘 모른다. 살아보니 사실 혼자 밥 먹을 만한 곳도 마땅찮고, 가까운 거리에 세탁소가 없는 것도 아쉽다. 그렇지만 저렴한 동네 마트와 시장이 있는 덕에 예전보다 과일이나 채소를 더 잘 사다 먹고 있다.

(사진 6)

은평구에는 다시 가 볼 만한 매력적인 곳이 많다. 다가구주택 여러 채를 이어서 만든 '구산동도서관마을'도 아직 한 번밖에 못 가봤고, 은근히 평범한 게 매력인 '은평맥주'도 아직 한 번밖에 못 마셔봤다. 옛 은평구 주민이 유물처럼 남기고 간 맛집 리스트 순회는 물론이며, 응암동 54-2번지에 있다는 200년 된 살구나무도 보러 가야 한다.

(사진 7)

매일 더 가까이, 아는 사이에서 친한 사이로

징검다리를 건너올 친구를 기다리던 천변 카페, 가을이면 탐스러운 감이 열리던 감나무 골목, 이 동네 곳곳마다 새로운 추억이 생겼다. 매일 낯장으로 담아온 불광천의 조각들이 사계절을 지나는 동안 근사한 그림으로 맞춰진 것 같다. 어느 책에서 '장소가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하고, 가끔은 사람보다 더 오래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고 했던 리베카 솔닛의 말처럼, 나와 불광천은 매일 조금 더 잘 아는 사이가 되어간다. 또 1년, 여기서 살아갈 나를 기대하며 천변에서 보낼 또 한 번의 사계를 기다린다.

(사진 8)

동네 생활 정보

교통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신내역, 불광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면 강남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을 타면 김포공항, 청량리 방향으로 간다. 간선버스가 많아 신촌, 종로, 여의도까지 버스로 다니기 좋다. 단, 응암 1, 2동은 마을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다.

쇼핑

동네 마트가 아주 많은 것이 특징. 대림시장, 신응암시장 등 지역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전통시장 또한 많다. 최근 이들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이 활발한데, 그중 불광천변의 증산종합시장은 청년 상인들이 자리를 잡으며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또한, 봄을 맞아 매주 금, 토마다 야시장을 연다는 소식! 자세한 정보는 은평구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eunpyeonggu>)를 참고해보자.

단골이 된다면

한나식빵 응암동 본점 |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7길 9

유기농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식빵 전문점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에서 서울 5대 식빵 맛집으로 소개된 바 있다.

우드사이드커피 |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천길274

2008년 삼청동에서 시작해 불광천변으로 이사해온 로스터리 카페
모카초코렛비엔나가 유명하며, 현재 나의 최애 동네 카페다.

금바위감자탕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353

냄비 가득 푸짐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감자탕 맛집

커피생각 |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264

탁 트인 전망이 좋은 용드립 커피 전문점

반디앤보스케 | 서울시 서대문구 불광천길 142

도심 휴양지를 표방하는 스튜디오 겸 키친

달콤한 솜사탕 풍의 인테리어로, 각종 촬영 장소로서 인기가 높다.

2017

서울대공원 VIP 브로슈어

원고 샘플

PART 1. 다 함께, 숲

P 8~9 (스프레드 페이지)

[INTRO]

서울대공원 곳곳에는 크고 작은 숲들이 숨겨져 있어요.
산책하는 기쁨을 안겨주는 둘레길, 다채로운 꽃과 나무가 반기는 식물원,
청정한 기운이 심신을 북돋우는 치유숲까지.
서울대공원이란 큰 숲을 두 발로 누비며 공원 곳곳을 둘러 보세요!

=====

P 10~11 대공원 둘레길 소개

가볍게 걷다 보니 이미 몸은 숲 속에!

대공원 둘레길

때로는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됩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평소에는 미처 보지 못한 하늘과 바람, 나뭇잎과 물결이 눈에 들기 마련이죠. 산책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楽しみです. 서울대공원을 에워싼 다섯 가지 둘레길 코스를 발길 닿는 대로 한 번 거닐어 보세요. 계절마다 특별한 정취를 자아내는 호수와 숲, 동물원의 풍경이 시시각각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문득 풀내음이 이끄는 곳에서 발길을 멈추어 보세요. 어느새 숲 한 가운데에 들어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꽃잎 따라 낙엽 따라 호수 한 바퀴

호수 둘레길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되는 호수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기린나라, 동물원, 테마가든, 국립현대미술관 등 서울대공원의 주요 시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호젓한 정취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호숫가 풍경을 눈에 담백 담아보세요.

아름드리나무 아래 한적한 숲길

동물원 둘레길

청계산 아래 동물원 외곽으로 난 순환도로 길로 조용히 걷고 싶은 분들이 찾는 숨은 명소입니다. 여름에는 큰 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가을에는 달콤한 향기의 계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가 어우러 집니다. 숲길을 걷다가 각 동물사의 동물들도 만날 수 있어요.

동물원과 맞닿아 있는 자연의 숲

산림욕장길

동물원 관람 중에도 숲을 찾고 싶다면 호주관 뒤편 산림욕장길을 찾아주세요. 청계산 능선을 따라 약 8km 가량 이어진 이 길은 중간에 셋길이 세 군데나 있어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공원 가장 높은 곳의 계곡길

대공원 숲 속 저수지 둘레길

동물원 공사를 지나 올라오면 천지를 닮은 저수지가 나타납니다. 우거진 숲이 수면 위를 에메랄드 빛으로 물들인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둘레길을 걸으며 살아 숨 쉬는 자연을 만나보세요.

=====

P 12~13 둘레길 상세 소개

호수 둘레길

많은 시민들이 가볍게 운동도 하고 호숫가에서 휴식할 수 있게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커다란 나무 그늘이 쉼터가 되어주지만, 호수 둘레길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가을입니다. 9월이면 향긋한 구절초가 피어나 동산을 이루며,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 호숫가 영화제도 열립니다. 코스모스와 어우러지는 붉은 석양과 머리 위를 수놓는 단풍나무를 감상하며 깊어가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TIP 호수 한 바퀴를 조금 더 느긋하게 돌아보고 싶다면? 귀여운 코끼리열차를 이용하세요!

소요 시간 : 약 1시간

전체 길이 : 2km

동물원 둘레길

본래 동물원 관리를 위한 차량만 다니던 길이였으나, 한적하고 걷기가 좋아 동물원 외곽의 트래킹 코스가 되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아름드리 큰 나무 터널 아래를 지나며 상쾌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가을이면 달콤한 향기의 계수나무와 느티나무, 벚나무 등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서울시가 선정한 아름다운 단풍길 81개소' 중 하나로 꼽힐 바 있는 동물원 둘레길은 사람의 발길이 잦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TIP 동물원 둘레길이 시작되는 북문까지 한 번에 오시려면?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라프트를 이용하세요!

소요 시간 : 약 2시간

전체 길이 : 6km

산림욕장길

청계산 능선을 따라 동물원 가장자리를 감싸는 산림욕장길은 부드러운 흙길로 된 청정 휴식 공간입니다. 약 8km의 산길 곳곳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5개의 오솔길과 11개의 테마 숲이 어우러져 천천히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생각하는 숲' 부근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 흙길이 있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흙의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토끼가 뛰어 놀고 새들이 지저귀는 천혜의 산림욕장길에서 숲에 스민 초록빛 숨결을 호흡해 보세요.

소요 시간 : 약 3시간

전체 길이 : 8km

대공원 숲 속 저수지 둘레길

둘레길을 따라 걷다 저수지 샛길로 들어서면 나오는 대공원 숲 속 저수지는 깊은 숲 속에 와 있는 듯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서울대공원의 가장 높은 지대에 있어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며, 저수지 아래에서 물을 뿜아 올리는 20m의 폭포수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숲과 호수가 조화를 이룬 자연 풍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공원 숲 속 저수지는 연인들을 위한 서울 근교 데이트 장소로도 적합합니다.

소요 시간 : 약 30분

전체 길이 : 0.68km

=====

P 14-15 치유숲

심신을 정화해주는 자연 그대로의 청정 숲

치유숲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보존되어 온 산림 치유 공간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산림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된 치유 숲은 피톤치드, 음이온, 소리, 향기, 경관, 햇빛 등 치유 인자를 통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청계산 계곡물과 천연 폭포가 흐르는 이곳에서 몸 속 가득 맑은 기운을 채워 보세요.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치유숲길

건강 심리 상태 체크하기

숲속광장

숲과 인사하기

몸풀기 체조와 건강 차로 피로 해소

향기숲길

맨발로 느껴보기

허브 향기 속에서 걷는 황토 모래발길

활동숲/하늘숲

하늘 바라보기

잣나무 숲과 함께하는 건강 체조

나무이완숲

마음 바라보기

바람결에 귀 기울이는 명상 시간

햇빛이완숲

자연과 마음 나누기

맨발로 걸으며 햇빛 맞이

물이완숲

마음 흘러 보내기

물소리, 새소리로 접하는 천연 폭포

[예약 안내]

단기 프로그램 - 하늘빛 마중숲, 금빛 마중숲, 은빛 마중숲

장기 프로그램 - 태교숲길, 행복숲길, 가족숲길, 아동숲길

특별 프로그램 - 회복의 숲, 힐링의 숲, 숲과 인문학

※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에서 확인하세요.

=====

P 16-17 서울대공원 식물원 소개

다채로운 색과 향기를 뿜내는 식물 궁전

서울대공원 식물원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선 매일 신비로운 꽃나무들이 영롱한 빛깔로 잔치를 벌입니다. 열대 기후의 야자수부터 건조 기후의 선인장, 온대 기후의 동백나무까지, 개성 뚜렷한 식물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숲 속 정원을 거닐며 특색 있는 자연의 이야기를 오감으로 느껴 보세요.

열대 식물을 품은 이국적인 공간

온실 식물원

하늘로 쭉 뻗은 키 큰 야자수들과 열대 식물들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는 각종 관엽식물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수생식물, 다양한 꽃을 피우는 선인장과 건조 기후에 강한 다육식물, 벌레를 잡아먹는 흥미진진한 식충식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휴식 공간

야외 식물원

봄에는 튤립,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 철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다양한 식물 표본이 전시된 생태 교육의 장

식물표본전시실

잎, 가지, 꽃, 열매 등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를 이루는 다양한 식물들의 표본을 볼 수 있는 자연 학습 공간으로 제1표본실, 제2표본실에 걸쳐 전시되고 있습니다.

장밋빛으로 물든 로맨틱 화원

장미원

수백여 종에 이르는 희귀품종의 장미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드넓은 호수 주위로 제각각 아름다운 향기와 자태를 뽐내는 수백만 송이의 장미꽃들. 그 환상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소중한 사람과의 영롱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봄날에 만발하는 축제의 꽃

2001년부터 개최되어 온 장미원 축제는 서울대공원의 다채로운 계절별 축제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정경을 자랑하는 대표 꽃 축제입니다. 매년 5월이면 수백만 송이의 장미가 붉은 바다를 이루고, 아름다운 장미 터널이 행복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장미의 전설로 불리는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사랑 이야기부터 유혹적인 클레오파트라의 장미 이야기까지. 다양한 꽃 이야기는 물론 화려한 공연과 이벤트 체험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의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

숲 체험 프로그램 안내

* 문의 : 02-500-7550, 7551

[교육명 / 주요내용 / 운영안내]

동물원에서 듣는 숲 속 이야기

막계골(청계산) 야생화, 습지 동식물 설명과

자연의 향수, '피톤치드' 체험 프로그램

기간 : 4월~11월(화~일, 10:00~12:00)

대상 : 유치원생(5세 이상) 및 초등 저학년 단체

캠핑장 햇빛 숲 속 이야기

팀별로 생태 관찰과 숲해설, 숲명상 체험이

가능한 숲속 탐방 프로그램 (아침반)

기간 : 4월~11월(화~일, 10:00~12:00)

대상 : 어린이(6세 이상), 청소년, 성인, 가족 단체(대상별 눈높이 진행)

캠핑장 달빛 숲 속 이야기

팀별로 생태 관찰과 숲해설, 숲명상 체험이

가능한 숲속 탐방 프로그램 (저녁반)

기간 : 4월~11월(화~일, 19:00~21:00)

대상 : 어린이(6세 이상), 청소년, 성인, 가족 단체(대상별 눈높이 진행)

1박 2일 숲 속 여행

캠핑 활동을 하며 숲 속 탐방과 명상 등

생태체험을 통해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프로그램

기간 : 7~9월(토요일 14:00~일요일 11시, 1박 2일)

대상 : 가족 (어린이를 포함한 4인기준)

꿀꺽! 꿀꺽! 벌레잡이 식물

곤충 및 벌레잡이 식물 이야기 설명과

나무조각을 이용한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기간 : 6월~8월(월~금)

대상 : 유치원생(5세 이상) 및 초등 저학년 단체

=====

2017

PRK 임페리얼 샘플링 패키지

애드버토리얼형 리플렛

[1P]

THE SMOOTH by Imperial

The smooth makes the smooth

QUALITY PURELY SMOOTH

퓨어 몰트와 저도주가 만나 완벽한 부드러움을 완성하다.

The Smooth, 더 혁신적인 부드러움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1994년 국내 최초 로컬 위스키를 출시한 이래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온 임페리얼이 선보이는 세계 최초의 퓨어 몰트 저도 위스키다. 기존 몰트 위스키와 저도 위스키를 대체할 새로운 영역의 위스키인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임페리얼 고유의 정통성에 몰트 저도주의 순수한 부드러움을 더해 위스키가 다다를 수 있는 최상의 부드러움을 선보인다.

The Smooth, 더 유니크한 부드러움

그레인 위스키 없이 17년산 몰트 위스키 원액만을 사용한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순수한 몰트만이 지닐 수 있는 부드러움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35도로 도수를 낮춘 퓨어 몰트 위스키 원액의 순수함에 저도주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몰트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럽고 유니크한 풍미를 선사한다.

The Smooth, 더 편안한 부드러움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한 글렌키스 증류소의 몰트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글렌키스 증류소는 남다른 증류 노하우로 편안하고 순수하며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 낸다. 위스키 전문가와 와인 소믈리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도주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부드러움 부문 1위로 호평을 얻은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몰트의 풍부함과 부드러움의 밸런스가 훌륭한 위스키로 평가받고 있다.

The Smooth, 더 여운이 긴 부드러움

위스키의 깊은 맛은 곧 숙성된 시간의 풍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년산 퓨어 몰트 위스키인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는 17년이란 긴 시간만큼이나 몰트 자체의 풍부한 맛과 향을 배가시킨다. 시간을 덧입은 새로운 몰트 저도주만의 부드러운 풍미는 그 여운을 더욱 오래 지속시켜 준다.

PURELY SMOOTH

from GLEN-KEITH DISTILLERY

더 순수한 몰트의 비밀, 글렌키스 증류소

스페이사이드(Speyside)는 전 세계 몰트 위스키의 90% 이상을 생산해 내는 스코틀랜드 디스틸러리의 절반 이상이 위치해 있는 위스키의 메카다. 벨라 힐(Balloch Hill Spring Water) 강, 서늘한 기온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스페이사이드는 위스키 숙성에 있어 더없이 완벽한 장소다. 이곳에 위치한 글렌키스 증류소는 부드러운 위스키를 탄생시키는 '비밀 실험실'로 불린다. 글렌키스의 증류기는 목 부분의 길이가 긴 편으로, 보다 부드러운 위스키의 맛을 재현해 낸다. 또한 증류 시 피트(Peat)향이 맥아에 배어들게 하는 일반적인 위스키 제조 방식과 달리, 피트향이 이미 배어든 물을 증류수로 사용함으로써 더욱 순수하고 풍부한 향의 몰트를 얻어낼 수 있다. 더 순수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자아내는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만의 퓨어 몰트의 차이는 거기서 비롯된다.

=====

[2P]

THE SMOOTH by Imperial

The smooth makes the smooth

STYLE

THE SMOOTH MEN

더 스무스가 부드러운 남자를 만든다.

SMOOTH LEADERSHIP

투박하고 강하기만 한 리더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이 대세인 것처럼 위스키 시장에서도 부드러운 저도주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층 치열해진 저도주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국내 최초 몰트 저도주'(또는 '세계 최초 퓨어 몰트 저도주')를 표방하며 국내 저도주 시장을 부드러움으로 평정한다.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순수 몰트 위스키에 저도주가 만나 부드러움의 격이 한층 높아진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 드러내지 않고도 트렌드를 리드하는 모습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인 남성상과도 닮았다.

SMOOTH LOOK

남자의 품격은 젠틀한 스타일에서 시작된다.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비스포크 정장을 입은 듯한 스타일리쉬한 패키지와 보틀의 품격을 유지하는 화이트 골드 엣지의 조화로, 결코 가볍지 않은 현대 남성의 여유롭고 부드러운 스타일을 대변한다. 어떤 강한 상대 앞에서도 유연한 카리스마로 일관하는 미소와 여유로움은 수트 입은 남자만이 풍기는 멋스러운 품격이다. 자신을 가꿀 줄

아는 현대 남성들의 매력, 부드러움이 곧 스타일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SMOOTH PERSONALITY

글렌키스 몰트로 제조된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위스키의 순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부드러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향과 맛, 목 넘김에 이르기까지 여유 있는 남성의 부드러운 캐릭터를 표현한다. 기존 블렌디드 위스키나 싱글 몰트 위스키와는 다른 차별화된 부드러움으로 승부하는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 저도주의 편안함을 선호하는 3040 세대 남성들의 진정한 부드러운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긴 여운과 풍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SMOOTH MANNER

빈틈없는 스타일과 온화한 미소, 잘 갖춰진 매너 있는 모습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부드러운 이미지가 최근 많은 남성들의 워너비로 자리잡고 있다. 철저한 자기 관리, 성숙한 매너는 오랜 시간에 걸쳐 무르익은 후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젠틀맨처럼 17년산 위스키가 거슬러온 인내의 시간은 여유 있는 남성의 부드러운 매너와도 닮아 있다. '더 스무스 바이 임페리얼'은 차별화된 부드러움으로 남성의 품격을 높여 줄 또 하나의 위스키다.

2016

샤넬 VIP 영문 가이드북

번역용 국문 원고 샘플

[HIGH END RESTAURANT]

정식당

정식당

정식당은 서울과 뉴욕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한식을 선보이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전통 한식의 친숙한 재료를 이용해 '뉴 코리안 파인다이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런치, 디너 코스 및 와인 페어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며, 3년 연속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위 내에 랭크됐다.

밍글스

Mingles

밍글스는 한국의 '장'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한식 및 아시안 창작 요리를 선보이는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서로 다른 것을 아우른다'는 이름처럼 서양식 다이닝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적인 맛을 만날 수 있다. 런치, 디너 각각 단일 코스 메뉴로 구성되며, 전통주 페어링 프로그램, 와인 페어링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석파랑

석파랑

석파랑은 정갈하고 담백한 궁중 음식 정찬을 맛볼 수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인 순정효황후의 생가를 레스토랑 본채로 사용하고 있다. 석파랑의 대표 코스 요리는 '수라'. 어만두, 칠향계, 신선로 등 귀한 궁중 요리가 한 상에 나오는 특별한 상차림이다.

가온

가온

가온은 왕의 수라상을 그대로 재현한 궁중 음식 전문점이다.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전통 도자 그릇에 담아내 한식이 가진 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코스는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 '온날'과 한식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가온'으로 나뉜다. 룸식 좌석으로 오붓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CULTURE]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한국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12,044점의 유물을 시대별, 테마별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화려한 금관, 고려시대의 청자, 조선시대의 회화, 근대의 사진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한데 만날 수 있다. 총 6개의 전시관과 50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조선의 도자 제기'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조선의 도자 제기'

조선 시대의 도자인 '제기'를 집중 조명하는 전시다. '제기'란 낚을 기러 음식을 바치는 '제사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조상으로부터 정통성과 신성성을 부여 받기 위해 하늘에 바치는 그릇으로 여겨졌다. 분청사기 코끼리모양 제기 등 50여 점이 상설전시관 1층 테마전시실에서 전시된다.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 벽화 운동의 주역인 디에고 리베라, 내면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다 칼로의 작품 세계를 회화, 드로잉, 사진, 의상 등 총 150여 점의 전시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두 거장의 그림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멕시코 돌로레스 올메도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들로 구성된다.

앤서니 브라운전

앤서니 브라운전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작가 활동 4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전시가 개최된다. '행복'이라는 주제로 250여 점의 원화를 선보이며, 출간 예정인 그의 최신작을 포함한 주요 미공개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국내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영상 등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한다.

[BAR & PUB]

더 버뮤다

더 버뮤다

더 버뮤다는 30가지의 다양한 칵테일과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바 앤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1층은 칵테일과 푸드 페어링이 제공되는 캐주얼한 공간, 2층은 신나는 하우스풍 음악의 젊은 감성 공간, 3층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Wet Aging된 스테이크와 플래터가 인기 메뉴다.

앨리스 청담

앨리스 청담

앨리스 청담은 금주법 시대에 유행하던 스피크 이지 스타일을 컨셉으로 한 바다. 입구에 있는 꽃집은 현실 세계와 앨리스 바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바텐더의 크리에이티브가 담긴 칵테일을 만나 볼 수 있다. 2016년 아시아 베스트 바 11위, 코리아 베스트 바 1위로 선정되었다.

칼로&디에고

KHALO&DIEGO

칼로&디에고는 이태원 경리단길에 있는 칵테일 바로, 프리고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가 살던 블루 하우스를 오마주한 공간이다. 1층 정원을 지나 2층으로 들어서면 벽화가 가득한 네온 무드의 바를 만날 수 있다. 국내 최고 바텐더의 시그니처 칵테일을 맛보며 공연도 상시 관람할 수 있다.

관시 라운지

KUANXI LOUNGE

관시 라운지는 지상 10층 높이의 스카이 라운지 클럽이다. '관시'란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중국어 GUANXI와 KOREA의 K가 결합된 신조어다. 전 세계의 문화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컬처 플렉스를 지향하는 이곳의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도심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며 칵테일 파티를 즐길 수 있다.

2010

olleh kt 블로그 운영대행

포스팅 샘플

[포스팅 샘플 1] 일할 맛 나는 세상, KT스마트워킹이 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사르입니다. 아침마다 출근길 많이 막히시죠? 교대역까지 출근하는 저 카이사르도 아침마다 교통체증을 경험하는데요. 특히 지난 주는 여름막바지 소나기가 내린 덕에 더욱 막히더군요...

“1시간 35분. 1,040만명” 이 숫자가 무얼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과 대중교통 이용승객 수 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철에서 책을 읽거나 하루 계획을 세우면서 매우 건설적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께선 수많은 차와 인파에 치여 지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T_T

(사진)

보다 효율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스마트워킹시스템

그럴 때마다 문득 “아 일주일에 한두번 만이라도 집에서 근무하면 좋겠다” 는 생각을 가끔 하곤 했는데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여기셨던 분들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조금 놀라우실 겁니다~ 다름 아닌 바로 저희 olleh kt 직원들이 9월부터 ‘스마트워킹’ 시스템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마트워킹?” 한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KT스마트워킹(Smart working)’이란 온라인, 모바일 기술과 같은 ICT 정보통신 환경을 이용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KT는 지난 23일 분당에서 첫 스마트워킹센터를 연 바 있는데요 ~ 스마트워킹이 상용화가 된다면 집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무실, 심지어는 카페 테이블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마다 교통체증 때문에 인상 쓸 일도 줄고, 도로 위에 버리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기혼 여성을 배려하는 KT스마트워킹

그렇다면 스마트워킹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ollehkt가 봤을 땐 일과 육아를 병행하시는 워킹 맘 분들께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 KT는 전 직원 분들 가운데서도 아이를 두신 여성분들과 R&D 지원업무 담당자님들께 우선적으로 스마트워킹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는 희소식이! 좀 더 내 아이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스마트워킹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집과 가까운 스마트워킹센터를 예약해두면, 회사에 가지 않고 이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에 벌집 구조의 칸막이가 되어있어서 마치 개인사무실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사진)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영상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KT 사내방송에서 소개한 스마트워킹 체험영상인데요~ KT스마트워킹센터는 어떤 모습일지, 같이 보러가실까요?

(영상)

스마트워킹,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만들어가다.

스마트워킹시스템의 효율성은 이미 외국에서 크게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1993년부터 스마트워킹을 도입한 영국 B사의 경우, 현재 2천여 명의 직원 중 87%가 참여 중인데요~ 재택근무자의 업무 생산성이 사무실 내근자에 비해 20~60%나 우수하다고 하네요. 또한 재택근무로 인해 불필요해진 사무실 공간을 줄임으로써 7억 2,500만 유로를 절약하고, 5만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등 그 효과는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워킹시스템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이 동시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여 녹색환경을 만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olleh kt 역시 2012년까지 전국 30개 지역에 스마트워킹센터를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서 olleh kt도 친환경적 산업 시스템을 만들어가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스마트워킹이 일상화되는 그날까지~ 저희 KT스마트워킹센터는 쭉쭉 뻗어 나갑니다^^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시작한 olleh kt는 직원들의 변화가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팅 샘플 2] '충전'하고 돌아온 카이사르의 지산록페 이야기

안녕하세요. 카이사르입니다. 지난 주말에 보내 드렸던 지산 벨리 록 페스티벌(이하 '지산록페') 소식 기억 하시나요? (지산 벨리 록 페스티벌에서 즐기는 olleh kt~) 혹시..., 지산에 직접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괜찮으신가요?^^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3일 내내 신나게 즐기셨을 텐데요, 직장인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이 유달리 싫으셨을 것 같습니다.ㅎㅎ

그날의 폭염 만큼이나 현장의 열기도 정말 대단했죠? 저 역시 지산록페 현장에서 3일간 여러분들에게 와이파이, 와이브로, 3G 네트워크 및 휴대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새카맣게 타서 돌아오니 다들 휴가 다녀온 줄 아시더라구요~ πππ(공연도 못보구, 일했다구요 쿨럭!). 조금 늦었지만 지산록페의 숨겨진 뒷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충전서비스, olleh KT가 간다!

저희가 지산록페에서 휴대폰 충전 부스를 설치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지난 월드컵 행사 때의 경험(변함없이 뜨거웠던 강남거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장시간 업무를 하다 보니 휴대폰(특히 아이폰!o_o) 배터리가 빨리 소진 되었는데, 마땅히 충전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날 응원에 참여하신 많은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그런 불편을 알고 있던 차에 때마침 트위터의 한 모임단체인 “억지당”이 저희 KT 트위터로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이번 지산록페에서 KT가 휴대폰 충전서비스를 하면 어떻겠냐구요.^^ 이미 지산록페 측에 3W(Wi-Fi, Wibro, WCDMA) 통신망을 제공하기로 했던 저희 KT는 추가로 휴대폰 충전서비스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저희 충전소 모습을 감상해보실까요?

(사진)

메인부스 및 2곳의 테마충전소(냉장고존/마법상자존)에 약 70개의 충전기를 준비하여 스마트폰 및 일반 휴대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메인부스에는 이번 지산록페 슬로건(Go Rock, Gp Green)에 걸맞게 친환경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했고,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게 노트북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냉장고Zone’과 ‘마법상자Zone’ 이라 이름 붙인 2곳의 테마 충전소에서도 충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여기서 잠깐 퀴즈~!! 저희 냉장고Zone에 설치된 냉장고를 열면 충전기 외에 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 동영상을 봐주세요.

olleh한 미션, 한 분이라도 더 충전시켜라!

행사 첫날에는 배터리 소모가 많은 아이폰 유저분들께서 충전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무르익어갈수록 일반 휴대폰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 역시 저희 부스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고속

충전기를 준비했지만 충전이 되는 시간동안 기다리시는 분도 많으셨고, 일부 분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T_T..

지산룩페 3일동안 저희 olleh KT부스에서 충전 서비스를 받아가신 분은 모두 1332분! 그 중 아이폰 충전 서비스를 받아가신 분은 692분(54%)이셨습니다.+_+! 처음 충전서비스를 기획할 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낌없이 저희 부스를 이용해주신 덕에 3일간의 행사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진)

휴대폰만 충전? 소통도 재충전하다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외에 이렇게 고객분들을 마주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지산룩페에서 직접 만나뵙고나니 짧게나마 고객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으로 기억됩니다(흑흑). 늘 저희가 실현하고자 했던 Listen & Change를 제대로 체험하고 왔다고 할까요.^^ 몇 번이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정도로 3일 내내 열정적으로 즐기시던 분들을 보며, 저 또한 뜨거운 열정을 잔뜩 충전하고 온 느낌입니다.

또한 KT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더욱 앞서가는 KT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지산의 열정, 일상에서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저희 역시 지산에서 많은 것을 느낀 만큼 여러분께 한걸음 더 가까워진 olleh kt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억지당이란?

억지당은 트위터상의 한 모임단체로, 수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상에서 전개하는 각종 이벤트들이 너무 식상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에서 트위터 상에서 기업과 고객간의 적절하고 재미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간의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내고자 결성한 모임으로 지금까지 미스터피자, 동원참치 등과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포스팅 샘플 3] <2010 과천국제 SF영상축제> 개막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루니입니다. 여러분들께선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액션, 로맨스물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B급 공포물을 선호하는 마니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SF 장르 만큼 충실한 마니아층을 자랑하는 장르가 또 있을까요? 영화 <백투 더 퓨처>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실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 과천에서 열리는 <제1회 2010 과천국제 SF영상축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세기, 영화기술의 발전과 세기말적 분위기를 타고 SF영화가 아주 붐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열기가 많이 사그라졌지만 해외 여러 감독들의 꾸준한 작품활동 덕에 SF영화는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SF의 전성기를 꿈꾸며 열리는 <2010 과천국제 SF영상축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개최되는 SF영화제인 만큼 뜻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며 즐길 수 있는 이번 SF영상축제의 홍보대사로는 배우 이순재님이 발탁되셨는데요 ~ 다소 이색적이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순재님은 한국 최초 SF영화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의 <대괴수 용가리>(1967)에 우주 비행사로 출연하면서 '국내 최초 SF 영화 속 우주인'이란 타이틀을 얻었다고 하네요~ 과연 SF영화제를 대표하는 첫 홍보대사 다텐습니다. ^^

(사진)

캡션: 증강현실 체험화면~ 내 손 안의 우주네요!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11일간 열리는 <2010 과천국제 SF영상축제>는 11개국 37개의 영화상영과 더불어 메인쇼와 우주비행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히, 이번에 후원사로 참여한 저희 olleh kt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체험'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 상공에 뜬 UFO와 곳곳에 숨어있는 에이리언을 찾아보시면서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링크)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2010 과천국제 SF영상축제>를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olleh kt가 개막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아래의 영화 소개 및 이벤트 공지사항을 주목해주세요^^

2009

앨범 소개글

Sleeping Store (잠가게) 1집 album 「ISAC」 소개글

출처 : **Sleeping Store (잠가게) 1집 자켓 수록**

멜론- <http://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398615>

작성일자 : 2009년 1월



Sleeping Store's 1st Album 'ISAC', 산티아고의 길

"When you want something, all the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잠가게의 음악을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소설 속 한 장면이 떠오른다. 소설 <연금술사>의 주인공인 산티아고가 보물이 묻혀있다는 피라미드를 찾아 사막의 밤을 걸어가는 모습. 나침반은 없다. 밤하늘의 북극성만이 길동무일 뿐.(sleeping on you) 고요한 사막, 어딘지 모르는 곳을 걸으면서도 조금하지 않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만 쉼 없이 걸을 뿐이다. 산티아고의 걸음 폭은 잠가게 음악의 템포와도 참 많이 닮아있다.

잠가게의 음악은 빠르지 않다. 그렇다고 졸리지도 않다. 그렇기에 더욱 다르다. 느린 템포는 잠가게의 미덕. 사운드의 점층에 마음이 아려온다. 그들이 이끄는 대로 마지막 곡까지 듣다보면 어느새 저 먼 우주와 내 안의 우주를 구석구석 유영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몽환적이다.

그 중 내 마음을 사로잡은 트랙은 <별 너머 먼지(stardust)>. 고요한 밤, 창가에서 별을 올려다보며 누군가에게 불러주고 싶은 이 노래는 어쩐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애뜻하다. 우아한 3박자를 소화해 내는 솜씨에, 마음에 묘한 파동이 인다. 별 너머 먼지가 되어서도 알아보고 싶은 애뜻한 누군가가 있는 당신이라면 코끝이 찡해질지도 모른다.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내 사람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일거란 확신이 들 테니까. 9분 30초를 자랑하는 마지막트랙 <sleeping on you> 역시 들을수록 중독되는 곡이다.

빛의 여백이 어둠이고, 어둠은 고요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하지만 잠가게는 그 통념을 깨트려버린다. 잠가게의 음악은 고요하나 밝다. 밝음은 희망을 말한다. 하지만 마냥 희망에 들떠 있진 않다. 잠가게가

전하는 희망은 "그래도 괜찮아."라며 엉엉 우는 대신 눈물고인 눈으로 웃어줄 수 있게 된 철든 아이의 희망이다.

어쩐지 잠가게의 음악에는 우주적 세계관이 들어있는 듯 하다. 비단 곡 제목만이 아니다. 별, 우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다루려는 세심함이 가사와 음악 전체에서 엿보인다. 음악을 듣다 펼쳐든 CD재킷, 바다 자국이 선명할 만큼 밝은 달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순 없다.

겨우내 잠을 저장(store)하는 꿈과 개구리는 어쩌면 오랜 시간 저 먼 우주를 떠돌다 돌아오는 건 아닐런지. 지난 해 살아온 고단한 생의 찌꺼기는 우주 공간에 털어두고, 이듬해 봄 돌아와 우주만큼 넓어진 마음, 깨끗한 정신으로 또 한해 새롭히는 순환의 과정. 정신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결국 동물들의 겨울잠이란 또 한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말이다.

Sleeping store는 그런 정갈한 잠을 음악에 담아 판다.

기껏해야 짧은 꿈이나 꾸고 마는 일상 속 사람들에게 잠가게가 첫 open을 하고 잠을 팔기 시작했다. 그들의 음악을 듣다보면 어느새 '똑똑', 마음속에 외판원을 들여놓았음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깨달은 그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 잠을 팔러온 외판원의 달콤한 노랫말에 이끌려, 모르는 새 내 발걸음은 꿈을 사러 잠가게로 간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 속 고요에 귀 기울이게 되겠지. 대구에 터를 두어 온 잠 가게가 어서 전국의 많은 이들의 귓바퀴 속에 지점을 내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2006~2007

대외활동 기명기사

1. 전주국제영화제
2. 희망제작소 해피리포트

[전주국제영화제 취재기사 1] [2호] 지프지기 에피소드, 기술 자막팀 강하림

출처 : 제7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웹데일리 JIFF온감(on感)

작성일자 : 2006년 4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 기술 자막팀 강하림



음지에서 양지로

이름도 예쁜 강하림 씨. 아버지께서 두 달에 걸쳐 지으셨다는 귀하고 예쁜이름을 가진 강하림 씨는 기술 자막지기이다. 영화제 기간 중 노란 점퍼의 물결 속에서 기술 자막 지기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주 활동 무대가 영사실이기 때문이다. 영사 지원, 자막, 필름 트래픽, 상황 팀으로 나뉘는 기술팀의 업무는 주로 어두운 곳에서 실행된다. 그래서 소위 ‘어둠의 자식’ 이라 불리지만 강하림 씨는 완강히 부인 한다.

“음지에서 양지로가 저희 모토지만, 절대 ! 어둠의 자식은 아니랍니다.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어요.”

기술 자막팀의 자랑거리라면 바로 협동 정신. 그 협동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뒷풀이 자리다. 일의 특성상 숙소를 배정받아 합숙을 한다는 것도 묘한 매력. 기술 자막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젊음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다.

지프라서 행복해요

하림 씨는 부산에서 왔다. 다섯 번이상의 지프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버스를 타고 세 시간 반을

걸려 왕복을 했던 강하림 씨. 영화제가 시작되어서 이젠 전주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뻐한다. 전주에 JIFF가 있다면 부산에는 PIFF가 있다. 부산에도 영화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까지 찾아온 이유를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는 이미 PIFF 티켓 파트에서 자원 활동을 했다고 한다. 입지를 탄탄히 굳혀가는 두 영화제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다. 부산에 비해 아기자기한 전주 영화제가 솔직히 더 재미있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JIFF가 끝나면 또다시 PIFF에 도전할 거라는 하림 씨, 차세대 자봉 중독, 조짐이 보인다.



촬영 현장의 맛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는 하림 씨는 영화 미술 일을 꿈꾸고 있다. 현재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원 활동을 하고 한편 으로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올 4월부터 시작했던 연출부 스텝 일. 전국을 다니며 촬영장소 헌팅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경험이 쌓아 놓은 길이 곧, 꿈에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 “영화일, 너무 재미있어요.” 전공과 좋아하는 것을 접목시킨 달콤한 꿈, 영화 현장 이야기를 하는 강하림 씨의 얼굴이 밝아 보인다.

잘 부탁드립니다.

매일 같이 부딪혀야 정이 드는 법. 그러나 다른 팀과는 달리 주로 영사실에서 일하는 기술자막지기들과는 매일 같이 부딪히기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어둠의 자식이 아님을 강조한다.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다와주세요.” 못 보던 지프지기가 있으면 서먹하지 말자. 서먹한 순간도 가까운 시간. 우리들의 특권 ‘방긋 미소’로 먼저 다가가는 지프지기가 되는 건 어떨까.

[전주국제영화제 취재기사 2] [1호;창간호] 지프지기 에피소드, 티켓팀 김영아

출처 : 제7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웹데일리 JIFF온감(on感)

작성일자 : 2006년 4월

보라돌이 그녀의 정체를 밝혀라!

- 티켓팀 김영아



스타 속출 JIFF, 이번엔 '후레쉬 맨'

7대 JIFF의 세계에선 한 주 걸러 한번씩, 행사를 치를 때 마다 스타들이 탄생한다. 지난주에는 지프지기, 단 5분의 공연으로 좌중을 사로잡았던 카리스마는 온감 0.2호 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4월 22일에는 영화제전 마지막 행사, 지프지기 발대식이 있었다. 영화제를 일주일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노란 점퍼의 화사함만큼이나 들뜬 지프지기들이 모였다. 사건의 온상은 바로 장기자랑! 불후의 명작들이 속속 출현했으니, Best of Best. 후레쉬맨의 등장을 잊을 래야 잊을 수가 없다. 어디 그 뿐이라, 끝내 헬멧을 벗지 못했던 보라색 501. 얼굴 공개를 부르짖던 못 남성들이여, 그녀를 공개한다.



나는야 '후레쉬맨' 히로인

티켓 팀 김영아. 그녀가 바로 그녀다. 보라색 추리닝에 유연한 골반의 그녀, 후레쉬맨의 감적인 안무를 맞춤웃처럼 소화해 냈던 그녀, 악의 무리를 연약한 몸으로 소탕한 그녀, 헬멧과 마스크로 무장했던 그녀. 김영아.

학교 장기자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후레쉬맨. 그것이 지프 세계에 또 한 번 일대 폭풍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빨강 초록 파랑 노랑, 분홍을 대체한 보라색까지. 온갖 원색을 망라한 의상은 발대식 장기자랑을 위해 직접 공수한 것. 본인의 보라색 추리닝은 어느 학교의 체육복이란단.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습득, 참 열심히 연습했다. 아이디어 회의에 늦은 연습까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아쉬움이 남는 건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짧고 굵은 한방이었으니 1등 욕심도 있을 법 한데, 이 아가씨 욕심 없단 말로 일관한다. 그렇지만 3일 뒤 결과 발표. 단연 후레쉬맨이 1등을 차지하고 만다.

완전 사랑합니다, 티켓 팀!

영아 씨가 JIFF 배에 합류한 건 지난 3월 중순, JIFF 부활을 통해 티켓 팀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3월 중순이면 이미, 팀 간의 유대가 끈끈해졌을 시기. 적응이 힘들지는 않았을까 우려되었지만, 그건 괜한 노파심이었다. 방긋 방긋 잘도 웃는 영아 씨는 조곤조곤 팀 자랑을 한다.

"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처음부터 잘 대해 주셨거든요. 세부교육이 많았던 덕에 많이 친해 질 수 있었죠."

영화를 보려면 티켓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상영장 지프지기들 보다는 먼저 관객들과 마주하게 되는 티켓 팀.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맞이하는 만큼 철저한 세부교육이 있었다. 제일 큰 덕목인 친절 교육부터 안내에 대한 전반적인 것까지. 또한 관객이 도움을 요청하기 쉬운 파트 중의 하나가 티켓 팀이다. 관객의 질문에 대비해 상영 영화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쉽지 않은 교육, 그러나 그 과정은 사람들을 얻는 지름길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 티켓 팀은 '화기애애' 예요." 매니저님들 자랑에 감사까지 빼놓지 않는 영아 씨. 과연 센스쟁이다.

사람이 너무 좋아!

영아씨는 현재 전주 교대 미술과에 재학 중이다. 아무래도 학교의 특성상 외부 활동기회가 적다. 목마른 이는 우물을 파나니. 늘 사람들을 갈망 하는 영아 씨는 스스로 길을 개척했다. 배구 동아리 활동, 과외 아르바이트. 게다가 전주 교대 다도 동아리 '茶사랑'의 창단 멤버이다. 그리고 전주 국제 영화제 자원 활동에 이르는, 사람을 얻는 활동들. 리포터도 사람을 얻을 요량으로 영아 씨에게 다도 한 수 배워보려고 한다.

20대가 좋은 이유는 어떤 일을 벌려도 감당해 낼 감량이 있기 때문이다. 일 벌리는 데 선수라는 영아 씨. 그에 동질감을 느끼니 영아 씨가 더욱 친숙하다.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을 배우겠습니다." 지프지기 선서, 문제없다. 사람이 이렇게 좋아 죽겠는 것을. 후레쉬맨의 히로인, 티켓 팀의 영아 씨를 찾아 갈 땐 방명록 수첩을 꼭 챙기시라.

[희망제작소 해피리포트] 문화와 더불어 꿈꾸는, 그 곳이 '우리세상'

출처 :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 해피리포트

작성일자 : 2007년 8월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2006년 3월, 인터넷을 달구었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기억하는가. 네티즌을 통해 유포되어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동영상은 변덕스런 입시제도의 삼각 틀 속에 갇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실 뒤편에 켜켜이 쌓인 책들, 책상에 엮어져 단 한명도 고개를 들지 않는 고3 교실의 쉬는 시간. 그것이 내가 거쳐 왔고 내 후배들이 현재 놓여 있는 교육 현실이다. 하지만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곳저곳에서 다른 교육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지역 내에서 유달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우리세상’이다.



「우리세상」입구 전경

청소년 변화에 따르는 「우리세상」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우리세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열린 공간이다. 우리세상은 1989년 「새벗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1990년 「새벗 청소년 도서관」, 97년 「청소년 문화센터」로 이름을 바꾸어 오다 마침내 2004년 사단법인 「우리세상」으로 탄생하였다. 이름을 바꾸어 온 과정은 곧 우리세상이 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듬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청소년 열린 교실’을 운영하는 동안 사회문제(전교조)를 계기로 참교육 수호에 눈을 뜬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책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사회의식, 정치문제가 퇴조하면서 청소년들은 ‘읽는’ 대신 ‘보기’를 원했다.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의 우리세상이 만들어졌다.



「우리세상」사무국 전경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우리세상의 조직은 크게 사무국과 사업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국은 다시 문화예술, 교육, 학교지원 분야로 나뉜다. 문화예술 사업부에서는 청소년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다. 야외 행사로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 매년 10월말 열리는 <청소년 문화 한마당> 프로그램이 올해로 8회째를 맞는다. 방학 때 진행하는 인권, NGO 캠프와 '지역역사 체험단' 활동은 중, 고등학생들의 반응이 제법 좋다.

우리세상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합 동아리를 만든다. 영화, 만화, 봉사, 독서토론 등 분야도 다양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진로탐색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찾아가는 서비스, 학교지원 사업

동아리 연합사업, 문화예술사업, 교육·연구개발 등 여러 사업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학교지원 사업'이다. 우리세상 내 교육 사업부가 진행하는 이 사업은 학교 내 특별활동, 동아리, 학급 및 학년 단위 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는 배우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 사실 '학교지원 사업'은 '교사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 소풍, 연극 동아리 교육 등 교사가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선생님들은 프로그램을 짤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세상의 이상과도 닮아있다.



여름방학 워크숍에 참가한 아이들

대구시민과 교사는 우리세상 서포터즈

하지만 공교육의 벽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교육부 산하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거절하는 학교도 많았다. 입시공부 시키기에도 시간이 빠듯하여 학교 안 특별활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공교육 교사는 그런 흐름에 맞설 만큼 힘이 세지 못하다.

하지만 불리한 싸움이라 생각하긴 이르다. 새бет 도서관 시절, 대학생 일꾼 40~50명이 아르바이트를 뛰며 지켜온 공간에 이제 후원자가 제법 많아졌다. 우리세상을 후원하는 교사·일반 시민은 약 1000여명.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세상과 같은 열린 교육 공간에 애정을 갖고 있다. 학교 교육이 못 채워주는 문화적 소양을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나마 배우도록 후원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세상은 재정 운영에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



우리세상,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우리세상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 얼마 전부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제도가 생겨 우리 세상의 행보에 작은 날개를 달아주었다. 대구시 공모사업은 물론, 2005년에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되어 올해까지 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안 통과에 힘입어 지역 내 지원단체로 선정될 수도 있다. 비록 시작 단계이기는 하나, 공적인 지원이 우리세상의 날개 짓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세상」 금시면 이사님 ((전)우리세상 ‘일꾼’)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의 학교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다름 아닌 ‘쉬는 것’이다. ‘쉬다, 놀다, 꿈꾸다.’ 10월 27일에 열릴 이번 청소년 문화한마당의 슬로건처럼 우리 세상은 아이들이 놀면서 꿈꾸길 바란다. 꿈꾸고 성장하는 동안,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따르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안과 밖(우리세상)은 학교를 기준으로 나뉘지만, 교육은 결국 안팎을 연결해야 완성 된다. 그 허브 역할을 교사가 해낼 때, 참교육을 만들어가는 선생님 곁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를 것이다. 우리세상은 그러한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학교 밖의 학교’다.

